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은총의 말씀을 들으라!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았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영적으로 흔들리는 교회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고 흔들렸다. 이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무거운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느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굳건히 서라.”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골로대로 가신 주님을 따르려는가? 그렇다면,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굳게 서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므로 굳건히 서라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한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착한 일을 하거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는 것에서부터 이제의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인간이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다 이루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긴 대가까지 다 지불하셨다. 그런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전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이러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는가? 이런 간증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 아니다(롬 8:3).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셨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친히 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갈 4:5).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법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 위에 굳게 서도록 하라.

법에서부터 자유함으로 굳건히 서라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말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갈 5:2-4). 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씀인지! 율법들도 필요하고 중요하나 신앙의 본질은 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만들고 그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시대든 교회 안

에는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할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 왜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 하십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곧 법을 강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며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다(갈 3:10).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자.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자. 이제는 믿는 자로서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자. 왜요? 또는 ‘어떻게요?’ 라고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6절). 놀라운 것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특권이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소망이다. 그리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비록 우리는 죄가 많고 두려운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의 의요 소망입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 의의 소망은 믿음에 의한 것이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 세상 의 불확실한 소망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롬 8:24). 이 땅의 것은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기를 원한다. 성경은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준다(골 3:4,5).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한다. 이 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이 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마침내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아멘.

(2004. 3. 3. 수요일, 위임목사님)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 기도회

금주 화요일(20일) 저녁 7시 30분 갈릴리움

사무엘상 7절을 보면,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진부 죽이고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공물을 구하는 그 때에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수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삼상 7:8).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은 온전히 기도했습니다(삼상 7:9). 그리고 100% 완전히 질 수 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큰 위기 속에서 기도하였던 사무엘의 심장을 가지고 금주 화요일(20일), 교회의 중직자인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블레셋의 가슴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골 2:5). 그래서 예수님처럼 땅방울이 땅방울이 되는 간절히 기도(눅 22:44). 하루하루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마 26:39)가 되도록 더욱 자기를 부단하며 무릎을 꿇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화개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FEAR AND FAITH

“... (30)But seeing the wind, he became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he cried out, saying, ‘Lord, save me!’ (31)And immediately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ok hold of him, and said to him, ‘O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32)And when they got into the boat, the wind stopped. (33)And those who were in the boat worshiped Him, saying, ‘You are certainly God’s Son!’ (Matthew 14:22-33)

After Jesus fed the large crowd, “Immediately He made the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ahead of Him to the other side, while He sent the crowds away”(v. 22). His decision was spiritual, not political. At the time, His name was well known; even Herod the tetrarch heard of him and recognized His spiritual side by acknowledging His miraculous powers(Mt. 14:1-2). This evil king had recently killed John the Baptist and thought Jesus was he reincarnated. John the Baptist was God’s special messenger, sent to prepare the way of the Lord as prophesied in God’s Word(Mk. 1:2-5). All the country of Judea and all the people of Jerusalem, soldiers, farmers, Pharisees, merchants, everybody came to him for the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He told them all, “After me One is coming who is mightier than I, and I am not fit to stoop down and untie the thong of His sandals. I baptized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Mk. 1:7-8). He preached about the coming Messiah, Jesus Christ. The people believed John; they believed the word of God, but their belief centered on a political Messiah, not a spiritual one.

When God’s holy sent messenger died by the order of a sinful king, over the silly request of a dancing girl, the people of God became confused, depressed, and scared. They came to Jesus, and He “felt compassion for them and healed their sick”(Mt. 14:14). His ministry did not change. He did not take political action against Herod, but continued to preach the Gospel. He astonishingly fed the large gathering, five thousand men (besides women and children), with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Perceiving the crowd wanted to take Him by force to make Him king (Jn. 6:15), he made His disciples get in the boat and go. The crowds did not have real faith, and without real faith people always make bad decisions and act out of fear. Jesus protected His disciples and sent the crowds away.

Jesus’ disciples had already spent two years with Him. They saw and experienced so many miracles, and even proclaimed the gospel message to others. This night they listened and obeyed Him by getting into the boat. As the boat traveled across the water, the wind and the waves became turbulent. They tried to control things with the oars, but to no avail. The water became angrier, and all joyous thoughts quickly disappeared. The situation was critical, and death seemed inescapable. Fear consumed their hearts just as Jesus showed up walking on the water toward their boat. In ancient times, people believed that the devil lived in water, like a dragon or something. When Jesus approached the boat, the disciples thought it was a ghost because that was their belief system. They saw Jesus, but confessed He was a ghost because they did not have real faith. They exhibited fear not faith. They screamed, giving up their life to the devil ghost, which is what happens to anyone depending on an earthly Messiah.

Jesus immediately calmed the disciples down, telling them, “Take courage, it is I; do not be afraid”(v. 27). Peter called out to Jesus, “Lord, if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v. 28). Peter was not so sure it was Jesus. He still had fear. He wanted to test the Son of God, just as Satan tested Jesus. Satan’s question was,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at these stones become bread”(Mt. 4:3). He also asked,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and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Mt. 4:6). Just like Satan, Peter cleverly tried to compare earthly things to heavenly things. Soon after this incident, Jesus told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God’s interests, but man’s”(Mt. 16:23). Satan, not Jesus, controlled Peter’s faith.

Jesus told Peter,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v. 31)? I want to ask you now, where is your faith? Do you really believe in Jesus? Do you really believe in the Word of God? When you read your Bible, do you suppose that the parting of the Red Sea, manna falling from heaven, and Lazarus rising from the dead are real historical facts? Do you honestly reason that little David killed the giant Goliath, or that Mary was a virgin when she conceived Jesus? Do you think Jesus actually died for your sin because you are a terrible sinner? Do you sincerely imagine that asking for earthly things is by your faith? Come on! You need to focus on Jesus Christ alone. He is the One who can give you eternal life. He is the One who can cleanse your sin. He is the only answer, the only Savior, the only Shepherd who can save you. The devil does not just thrive in water, he flourishes in fear. He loves jealousy, which comes from a loss of love, greediness, which comes from insecurity, and lying, which comes from fear of punishment. Jesus wants to relieve you of all fear, if only you will believe.

My dear friend, all people experience sad, frightening, and sometimes horrific moments. It makes no difference whether you are a theologian, pastor, or layperson, or even if you believe in the Bible and pray, you will face times of nervousness, depression, and fear. Christians have a way to overcome these emotions. It is the way of faith. As you look and wait for the hope of the future, fear will come. Therefore, you have to remember that heaven and earth may pass away, but Jesus will never change. Faith in Jesus Christ makes all things possible. He asks you to believe in Him. Do you believe? If so, where is your faith? Faith defeats fear; it conquers all things. Have you ever wondered why children love to play with toy telephones? I think it is because they do not like being alone. Jesus promised,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Mt. 28:20). He is the One you need to trust. Amen. 🙏

다음 주일 설교

두려움과 믿음

“...⁽³⁰⁾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려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³¹⁾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은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³²⁾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³³⁾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 14:22-33)



김성관 목사

무리를 먹이신 후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22절).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결정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어서 분분왕 해롯조차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 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영적인 관능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마 14:1,2). 이 사악한 왕은 최근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되살아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막 1:2-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 군병들, 농부들, 바리새인들, 상인들 할 것 없이 모두 죄 사람을 얻게 하는 회개에의 세례를 받기 위해 그에게 나아 왔습니 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배를 풀고도 감당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막 1:7,8). 그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중심에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사자가 사악한 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란과 절망, 공포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마 14:14). 주님의 사역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해롯왕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후 무리들이 자신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요 6:15)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과 2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배에 올라 타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의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노를 저르려고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사나워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황은 아주 급박해져갔고 제자들은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바다 속에 용이나 뱀과 괴물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다가오자 귀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금방이라도 괴물에게 잡아먹힐 것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메시아를 찾았던 사람이라든 누구라도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즉시 말씀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27절). 베드로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28절).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가로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마 4:6).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 영리하게도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일이 있는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하시고”(마 16:23).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의 믿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31절). 지금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흥회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음을 믿습니까? 정말로 소년 다섯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누린 일과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진실로 믿으십니까? 혹시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철석 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한 분뿐인 구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참 목자입니다. 마귀가 사는 곳은 물 속이 아닙니다. 마귀는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치소에서 번성합니다. 마귀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생기는 질투를 좋아합니다. 불안 속에서 나오는 탐욕을 좋아하고, 처벌을 두려워함으로써 꾸며내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온갖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두려움, 때때로 공포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목사들 평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조차도 신장과 무기면, 두려움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에 차서 기다리는 중에도 두려움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지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이들이 장난감 전화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장로 칼럼

십자가 군병된 19교구

성경은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딤후 2:3). 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군사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군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생활에 열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 19교구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으로 세워지는 천국일꾼으로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직 1,500명 중 중등교부는 10%를 차지하고, 대학부는 21%, 청년1부와 예배다부, 사랑부, 외선부는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기에 이들의 신앙은 더욱 겸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 가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저희 교구는 이들을 복음으로 교육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깨닫고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지만 이것은 오직 자기 부인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력한 현금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양육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열매이지 않는 훈련 / 젊은이들로 구성된 저희 교구식구에게는 자기 생활에 열매이지 않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타락된 문화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국 일꾼이 되려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열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말씀 훈련과 더불어 교회 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와 교육 부서의 교사들, 그 외 필요한 부서에서 다양하게 봉사를 하고 있으며 19교구에 처음 소속된 사람일지라도 즉시 봉사 부서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혼자 신앙을 꾸려가는 교구 구성원의 특성상 이런 봉

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에서의 압박을 견뎌 내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의 목표 중 하나는 이들을 통해 그 가정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가정의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일 예배뿐 아니라 금요집회에 참석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각 예배는 15분 전에 참석하도록 권면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천국일꾼이 되도록 세워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화 /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러(행 1:8)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이 명령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단기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고 직장인들은 휴가 기간을 단기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19교구에 속한 중학생까지 단기 선교에 동참하여 십자가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되면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행 2:17). 그 환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지는 것입니다. 19교구는 주님이 주신 이 환상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 민족과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조훈환 (19교구장)

대학부 D구 선교팀 후기

무릎으로 전한 복음

♥ 내가 바닷속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하였다.

선교를 갈 때마다 하나님을 피부로, 뼈속으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가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기대감이 거의 없었다. '선교마저 나에게 익숙해진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당연하게 된 것인가.' 그런데 첫날 새벽 밤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제서야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 옛날 내가 바닷속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하였다. 무감각해진 나의 모습과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제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을 회개하였다. (이단비)

♥ 아이들과 할머니의 눈 속에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순수함을 보았다. 우리가 하는 운동과 찬양을 잘 따라해 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 아이들이 비록 지금은 주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준 전도지를 훑아 보면서 다시 한 번 주님을 깨닫길 기도했다. 한 할머니가 기억이 난다. 전도지를 드리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며 축복해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내 마음을 뜨겁게 했다. 나는 아이들과 할머니의 눈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다. (김수정)

♥ 그제서야 깨달았다. 십자가의 소중함을,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수없이 외치고 다녔던 말인데 유독 한 아주머니 앞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목소리가 떨려서 높았다. 알지 못하는 감정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에게 어떤 설명도 하시지 않았다. 그저 나를 감격하게 하였고, 나는 눈물이 났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십자가의 소중함을,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고전 1:17). (유미경)

♥ 나를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전령으로 사용하여 주셨다.

사역을 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알았다. 전에 처음으로 선교지에 사역을 왔을 때 함께 가셨던 한 집사님께서 많이 지적하고 힘들어 하셨을 때 내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지치고 힘든거라고..." 그 당시에는 그 말이 크게 와 닿지 않고 그게 무엇일지 모르겠어서 잘 몰랐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번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전령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전할 때 나의 말은 비록 서툴고 어눌하지만 주께서는 매순간 매순간 나와 우리 팀과 동행하시며 역사하셨다. (지은진)

♥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첫날 새벽 때 매우 완악한 영혼들을 만났다. 그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또 우리를 멸망하게 내쫓으려 욕을 하는 모습에 화도 많이 났다. 그 일로 우리 운전기사는 길을 막았고, 현지 사람들이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 날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다시 길을 열어 주셨고, 다시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강승호)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처음 가는 선교로서 그런지 내가 나서서 무엇을 꼭 해야만 할 것 같았고 또한 사역지에 가기 전에 그곳의 소식이나 상황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서 선교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출발 날짜가 다가오면서 부족하고 낙담한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선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곳에서 담대하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 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하루하루 계획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 하였기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첫 번째 사역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곳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 앞쪽의 화물차가 벼들을 훑아 길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측에 있는 길로 들어섰고 그 길로 가는 도중 어떤 마을 앞을 지나려 할 때 우리의 차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이 하나님께서 애매해 두신 마을임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났고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을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마을 중 한 곳에서 이런 사람이 자기 집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찬양하였고 정말 그 마을에 복음이 넘치고 교회가 들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역 셋째 날 오전에 어떤 학교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의 반대로 학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가는 우리를 바라보던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눈빛을 생각하며 아직 학교에 못 가는 어린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는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부족하고 낙담한 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해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명민 (참년1부)

진정한 선교

실감나지 않았는데 선교지에 도착하여 덥고 습한 공기를 마시고야 비로소 '선교지에 왔구나, 사역이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출발 전에도 팀원들이 모인 시간은 많았지만 영적인 부분을 다듬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고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한 듯한 얼굴의 팀원들을 보며 많이 걱정했고 마음이 무겁기까지 했습니다. 이를테는 긴 이동 시간 때문에 모두들 지쳐 있었지만 처음의 걱정과는 다르게 사역이 시작된 뒤로는 모두들 표정도 밝아지고 사역이 계속될수록 모두 몸은 지쳤지만 보혈의 은혜로 표정만은 더욱 환해져 갔습니다. 평가회 후에도 기도회가 적극적으로 계속 이어져 갔고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역 때는 전도지를 찢으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속상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발음과 신기한 얼굴 모습에 관심을 보이던 하나하나 꿈쩍도 못하던 현지인들은 아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없을 줄만 알았던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교회를 보았을 때 감사와 기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평가회 때는 사역은 힘들었지만 귀중한 복음 사역의 도구로 선교지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사용됨에 감사하였습니다. 또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을 끝까지 간직하도록 기도할 사람이 우리들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선교사들처럼 이 땅에도 동일하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단순히 열혈 정도와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이제 정말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일할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또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구체적인 비전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선교는 끝났지만 진정한 선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끈을 놓지 말아야 함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인준 (대학부)

운전기사 '한다'

"잡사님(집사님) 구엔잘아(겐잘아)" 하면서 '한다'는 엄지손가락을 펴 보입니다. 이 돌발적인 말에 우리들은 폭소를 쏟아냈습니다.

사역지에서 우리 팀의 말이 되어준 '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운전기사는 계속 말을 하지만 우리는 "잡사님! 구엔잘아!" 이 두 단어 외엔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더 이상 말 없이 줄음이 올 정도로 꽤 긴 시간을 달리다가 갑자기 "잡사님! 구엔잘아!"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보입니다. 또 다시 폭소! 우리는 그에게 발음을 교정해 가르쳐 봤지만 여전히 "잡사님! 구엔잘아!" 라고 할 뿐입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알아듣는 것은 이 두 단어뿐입니다.

이웃과 나는 이 이방인의 말을 영적인 면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기도원의 보리력과도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잡사'라는 칭호가 감당기 어려운 직분임을 고백합니다. 하온데 '잡사'인들 어떠한 말씀입니까? 운전기사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잡사'인 저희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 전파가 겉날개 보이신 것입니까? 그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잡사님! 구엔잘아!"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펴 보이게 하신 것입니까? 진정 그러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저희들의 이 복음 전파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셨던 것입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소망하신 일에도 저희 '잡사'들이 쓰임받게 된 것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으실때 '잡사'가 아닌 '잡사'라 한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무슨 불만이 있을 것이며 불평을 하리이까?

주님! 우리를 태우고 다니던 그 운전자의 이름이 '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우리 팀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교를 정말 '한다'면 하고야 마는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 이방인 '한다'는 우리 선교팀의 입술의 혀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선교팀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의 신앙은 아직 어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가 그 땅의 복음화에 앞장선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소서. 그의 입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홍성국 (인수집사, 9교구)



이반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20일(목) - 9월 30일(금)	14교구(7부)	홍희철	9월 23일(금) - 10월 1일(토)	청년2부(6)	최우근
9월 20일(목) - 9월 30일(금)	14교구(7부)	이근호	9월 24일(토) - 10월 3일(일)	5교구(7부)	김영숙
9월 21일(수) - 9월 30일(금)	1교구 8구역	김종호			

만해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15일(목) - 9월 20일(화)	유이부	이세영	9월 16일(금) - 9월 24일(토)	청년2부(6)	정재영
9월 15일(목) - 9월 20일(화)	참년1부(6)	문은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5일(월) - 9월 13일(화)	장로1	김근근	9월 6일(화) - 9월 15일(목)	8교구 추가	김해길
9월 6일(화) - 9월 14일(수)	11교구 7구역	최호영			

추석에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유교, 천주교, 불교 등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다. 그 많은 종교 속에서 추석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묘를 하고 차례를 지낸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예외다. 다는 아니겠지만 차례 대신 추도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린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석 때 차례를 지내며 우상 앞에 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작년에 학교 선생님께서 추석 숙제로 '성묘하기'를 숙제로 내 주셨다. 선생님께서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성묘 안 한 사람 있어요?'라고 물어보셨다. 그 때 나는 손을 들었다. 또 한 명이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왜 성묘를 안 했지?'라고 물어보셔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묘를 안 하는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때 내 주위에 나처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 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 저 아이들은 그냥 성묘를 따라갔겠지...' 하며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 아이들도 나처럼 몰랐을지도 모르니까 앞으로는 친구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겠다.

이번 추석은 더욱 뜻 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 가운데 주일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주일날 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추석 가족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으니 더 뜻 깊은 것이다. 내가 이렇게 다짐하는 만큼 교회에 다니는 내 친구들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배드리며 가족들을 인도하거나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최은 (소년부)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나는 한 때 주님의 잃은 양이자 잠소 중의 하나였다. 사탄의 계락에 빠져들어 교회에 실증을 느끼고 교회에 자주 빠졌었다. 주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해 주셨다. 내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역시 예수님이었다. 나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선교를 갈 수 있게 하셨다.

선교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신'이라는 것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곤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듣는 사람조차 있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수없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라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나에게 충격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분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선교를 가기 전에는 '안 그래도 짧은 방학 기간을 쪼개야 한다'라는 생각에 좋지 않은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갔다오니 조금 피곤하기는 했지만 깨달은 것이 많고 결코 후회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있다.

이제 새 학이다. 아쉬움이 남는 방학을 뒤로 하고 새 마음, 새 각오로 개학을 맞이하듯이 옛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혜은 (중2부)

"감사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우주만물 사랑해요. 왜냐하면 줄으신 분이기에 때문이에요.

사람들도, 바다도 만들고, 숨쉬는 나무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시원한 그늘과 예쁜 꽃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걸을 수 있는 다리와 물건은 만질 수 있는 손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힘들 때 타는 차를 주셔서 감사해요.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기차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앓을 볼 수 있는 라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유치부 선생님들은 책도 주시고 예수님 말씀도 들려 주세요.

저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놀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거예요.



주모세 (유치부 열매 8번)

주님의 도구

주님 안에 거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4대간 한 자방 밑에 살면서 겉으로 평안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서운함과 갈등으로 힘들었다. 또 아들 내외의 갑작스런 이혼으로 마음이 심히 편지 않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려 무던히 애쓰던 중에 몸에 병이 생겼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를 잠식해 왔지만 어서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얻고 싶었다. 그래서 내 몸을 그대로 방치하자 이제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나날이 병증이 커져갔고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주님께 내맡긴 인생이라는 믿음으로 선교를 다녀왔다. 또 다녀와서는 보내는 선교사로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7월 29일 정식으로 유방암 2기라는 선고를 받았다.

바로 이 때에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어느 곳이든지, 나를 깨우쳐 주셨다. 주님은 내 몸을 내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지체임을 망각했던 것을 알게 해 주셨고 회개의 문을 열어 주셨다. 그 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여 주셨다. 유방암 치료의 권위자를 통해 은혜 가운데 유방 절제 수술을 받게 하셨다. 수술 후 병원에 있으면서 나와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병실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 작은 입을 벌려 영혼이 궁핍함으로 갈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단비를 주시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내 삶을 증거하게 하셨다. 환우들 가운데 원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계시는 분이 주님을 영접하였다.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고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해요."라며 그 동안 주님을 외면하며 거부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겠다며 회원을 하였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나의 상처나 재발의 두려움보다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생겼다.

정말로 보잘것없이 생각했던 나의 육신이 진정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남은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의 도구로서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십자가만이 드러나길 기도할뿐이다.

교회 탐방 80 대학부 창미교회

언제나 주님만을...

신령한 천국같은들을 만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더불어 선안 일꾼이 되고 싶어진다. 주님이 쓰시는 천국같은이 되려는 대학생들은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을까?

‘조’의 개념과 계약은?

대학부에는 ‘조’가 있고 ‘조’가 있습니다. ‘조’는 팀의 구성 요소로서 믿음의 친구들이 복음을 배우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대학부는 현재 15개 팀, 68개 조가 있습니다.

(창미의 초상)

창미의 ‘조’라는 실명을 내 건 조장으로 애가 무겁거든요?

정말 책임이 큼니다. 거룩한 부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부교리 지업은 조장이 되려고 말씀과 기도예 집중합니다. (창미희)

창미의 조의 색깔은?

십자가 때문에 따뜻한 초, 잘 모이는 초입니다. (창지은)

조가 주는 영적 수익은?

창미희는 서로 따뜻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믿음에서 성장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창지은)

시험에 들 때,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쳐 내곤 합니다. 그래서 ‘대학부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학 봐야 한다’라고 친구들한테 힘 주며 말합니다. (창지은)

조장처럼 성기는 마음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대학부의 한 친구가 세상과 철저히 타협 안 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에게만 단호한 신앙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보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승규)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신앙이라는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떤 방향으로 승리하시나요?

십자가만을 따르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 천



공이 생명권에서 있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창미희)

“즐거워 보자라는 마음으로 방향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회복되었는데 그 때 주님의 위로를 느꼈어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세상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지은)

연식과 신앙의 괴리감을 느낄 때 기도도 여겨 냈습니다. (창지은)

온자서도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 했고 결국 주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 변화시켰습니다. (김승희)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으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가면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말고 그 여백에 쓰여진 것만을 기꺼이 주님을 따라 삼겠습니다. (창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늘 군론을 생각합니다. 포도나무가 씨를 때는 반드시 뿌리를 거둬야 보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승규)

금요일의 은혜를 나누까요?

주일예배와는 또 다른 생명의 은혜가 있어요. 편안해지고 설교가 친근하게 느껴져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고 싶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김여름)

금요일의 때 영성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승규)

금요일 저녁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치유받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감 수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위임목사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창미희)

신령한 일꾼들이 되기 위한 노력은?

늘 말씀을 보며 주의 인도를 받으며 삼겠습니다. (창지은)

작은 일부터 구체적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태연 지아질에서 말씀을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식기도를 하는 일 등입니다. (이승규)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언제나 애 삼겠습니다. (창미희)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여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김여름)

복음을 전하며 성기는 삶을 삼겠습니다. (김승희)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전도의 압박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이 바로 주님의 통치이 라는 의미를 보여 주고 싶습니다. (김승희)

우리는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보고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대학생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을 통해 우리 자식들을 돌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가까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이들의 고백이 신실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주님도 이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흐뭇해 하셨다. (편진실)

다움주일 찬송

449장

이 세상의 친구들

본 찬송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는 말씀에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 함께 하심을 찬양한다. 본 곡은 아더 루터 (Arthur A. Luther, 1891~1963)가 작사 작곡하였으나 찬송의 작사 작곡의 동기가 배경에 대해서나 또 그에 관하여도 알려진 것이 없다.

1절은 이 세상의 친구들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의지하고 가깝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맘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찬양한다.

후렴은 온 천지 만물은 불변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흘러가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되 나 내 믿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막 13:31)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찬양한다.

2절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또 고난과 환난의 어려움, 깊은 구름과 광풍이 일어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에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찬양한다.

3절은 우리 인생의 괴로운 일, 낙심할 일이 있을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영원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이 나를 사랑하시기 에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수 있다. 이 능력의 주님을 힘 있게 찬양하는 찬원의 성도가 되자.

(찬원위원장)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615	이혜연	19	중동부	김정현(1)	2638	이소현	2	창2부	김정현(하)
2616	김진현	19	창1부	고영훈(1)	2639	박혜연	19	고동부	윤수원(1)
2617	이혜연	19	대학부	권애(하)	2640	김유선	9	창2부	김은재(하)
2618	박연희	12	창2부	김동준(1)	2641	전길영	17	창1부	지영선(17)
2619	권병철	19	창1부	신민철(7)	2642	이정호	12	창2부	이혜현(1)
2620	정태재	12	창2부	정민준(1)	2643	문순현	5	창2부	정미경(1)
2621	이상희	2	창3부	박영자(2)	2644	이상현	19	창1부	정영수(1)
2622	이연은	15	창1부	김정희(1)	2645	이진희	19	중동부	정영준(13)
2623	정선민	19	외선부	박재현(1)	2646	전옥희	19	창1부	서지혜(1)
2624	최미리(하)	19	외선부	유정선(1)	2647	신기숙	17	창2부	신민준(17)
2625	간수호	19	외선부	지르갈(1)	2648	이영희	10	창2부	정영수(12)
2626	나리	19	외선부	지르갈(1)	2649	창정수	1	창3부	이연선(1)
2627	제기	19	외선부	지르갈(1)	2650	한홍희	19	창3부	박성희(1)
2628	유호지(하)	19	외선부	지르갈(1)	2651	정현민	1	창3부	김성희(1)
2629	비트비트(1)	19	외선부	비트비트(1)	2652	박영희	19	중동부	오영재(하)
2630	분우	19	외선부	김철현(1)	2653	김영희	19	창3부	김정현(17)
2631	필다우(1)	19	외선부	김철현(1)	2654	김수원	19	창1부	최유근(하)
2632	박유진	19	창1부	김예은(1)	2655	이영희	9	창1부	이영재(하)
2633	박성금	5	창2부	유복심(2)	2656	한영식	13	창3부	김영희(1)
2634	손일환	19	창1부		2657	신정현	19	창1부	박영자(1)
2635	권진은	19	창2부		2658	김영희	9	창3부	이영준(13)
2636	전영현	14	창2부	김영모(하)	2659	한영미	19	창2부	김진희(하)
2637	박은경	19	대학부	이민주(하)					

* 찬송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회 3차회 월례회
일시: 21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감리리홀

별세

1. 김화선 성도(김종근 성도의 부친, 백
해령 성도의 사부, 2교구 해광구역)
/ 8월 별세, 10월 장례
2. 김재주 성도(성정보 집사의 남편, 김
집사, 김장희 성도의 부친, 최선미
집사의 사부, 13교구 영광구역) / 8
일 별세, 10월 장례
3. 권동재 타교집사(권영선 집사의 부
친, 한승조 집사의 장인, 10교구 주

- 유2구역) / 9월 별세, 12월 장례
4. 정태원 타교집사(정희자 집사의 부
친, 신관길 집사의 장인, 2교구 삼정2
구역) / 11월 별세, 13월 장례
5. 김순희 타교집사(김유정 피택편사
의 모친, 이영모 성도의 장모, 2교
구 경북1구역) / 11월 별세, 14일
장례

결혼

1. 이윤규 군 (이정각 안수집사, 김경애
관사의 아들, 14교구)와 박수영 양
(박학래 씨, 주경순 씨의 딸) / 24일
(토) 1300 H.센타 5층 크리스탈홀
(양재동 롯데호텔)

◆ 안수집사회 찬양연습

기 간 : 9월 25일(다음주일) ~ 11월 6일(주일)
시 간 : 15:30~16:30 장 소 : 교육관 307호

◆ 음력절 카메라 봉사자 모집

자격 : 만19세 이상 남·여 교인
문의 : 음력실 (내선 224번)

◆ 2005년도 하반기 사회교실 개강

기 간 : 2005. 9. 25(다음주일) ~ 2006. 1. 29(주일)
시 간 : 15:10~16:30 내 용 : 초급, 중급, 고급
장 소 : 제2교육관 1층 예배대부, 코이노니아홀
수강료 : 무료(교재비 별도)
접 수 : 예배대부(내선 416번)

9월 충현 기도의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심자가 복음의 톨로로만 사용되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2. 충현의 모든 정치가와 성도들이 심자가 복음으
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의 종이 되게 하소서.
3.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
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4.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웃
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
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
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고 심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7. 5대 위원회의 하나님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심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통산·복지)을 심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충현기도원 직원모집

1. 모집부서 기능직 (문헌관리, 청소차장,
설비 및 전기기술, 경향자)
2. 자격 학제고교인
3.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등학장 추천서(타교단)
4. 서류제출처 서촌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2-552-8200/82003

청년1부 총동원 집회 및 수련회 안내

■ 영문 사랑의 달 총동원 집회

- 일시 : 10월 1일(토) 오후 5:30
- 장소 : 제2교육관 4층
- 대상 : 청년1부 대상자(전체 34세 이하 미혼)

■ 수련회

- 기간 : 10월 2일(주일) ~ 3일(월)
- 장소 : 충현기도원 (천령매배 후 교회 출발)
- 주제 :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 16:16)

이번 주 새가족기도 담당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주일)
설교자/기도자	이경준/임창식	이창수/김종만	김준희/정부조	윤수일/함승호	황진성/권병철	정성영/한영준	임현덕/김연식

예배담당 안내 (9/21-9/25)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9/21	주요Ⅰ	구원으로 인도하는 (호산나 찬양대)	이종대	이영자	환란의 의미 (행 11:19-21) 김익환 목사
9/21	주요Ⅱ	하나님은 와야들을 (설교장 찬양대)	황진성	김경자	하나님의 큰 사랑 (요 3:16) 박민기 목사
9/23	금요집회	8교구 / 소프라노 김지희 / 성교 중창단	여국근		양재용 목사
9/25	주일Ⅰ	(예배 전 찬양)	이정훈	안석현	두려움과 믿음 (마 14:22-33) 안석현 목사
9/25	주일Ⅱ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소프라노 김혜선(예쁜 찬양대 지휘)	김익환	신상수	두려움과 믿음 (마 14:22-33) 이경준 목사
9/25	주일Ⅲ	참 아름다워라 / 비올라 신민경(할렐루야 오케스트라)	김광환	이정우	두려움과 믿음 (마 14:22-33) 정현민 목사
9/25	주일Ⅳ	대 성 의 지하는 예수와 / 테너 공병식(이현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용덕	김영달	두려움과 믿음 (마 14:22-33) 하종철 목사
9/25	주일Ⅴ	날 대속하신 예수께 외 / 바리톤 신재훈(예쁜 찬양대)	최종철	김영수	두려움과 믿음 (마 14:22-33) 정현민 목사
9/25	주일찬양	가브리엘 중창단 / 할렐루야 찬양대	정충신	임재봉	누가 더 사랑하셨는가? (눅 7:36-50) 여국근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회개 및 동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여객기 동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5: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30	본 당
새가족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교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일집회	오후 11:00	금요일집회 후 본당 앞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랑 부	오후 12:15	간 담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예배대부		
신상수	오전 9:00(찬양대)	제2교육관 1층
박 아 부	오전 9:00(찬양대)	교육관 110호
제2가족목양부	오후 12:15	배 다 나 홀
송기환이외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산장예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이 번 홀		

심 · 위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사무장

-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이평선 임필선 이 훈 남선우 김경원 김준구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최두길 이창호 차진숙 김광남 이종석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안종욱 임무현 이기재 전종용 전종원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이정우 김단용 한승규 김영수 김환기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원운철 이형수 안동현 황미만 김구형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최은덕 이계인 박덕양 이대식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박용규 권명복 조종환 배준식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이철호 최지훈 노영환 박철구 정정길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신상수 고재승 정현철 김영은 이대욱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장정환 김승근 함철주 윤석민 정현철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안석현 김현근 김광국 김종선 임용식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김은철 전학래 김신국 전계식 김형곤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장승국 전은배 서영식 주재환 송두심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박민기 류병희 김영훈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여국근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고광환 위진광 김기환 장 훈 임현덕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석현 정충신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양재목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일 황진성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정성영 이경훈 김성환 김성환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여전도사
- 신동자 윤은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이숙자 김향자 안태수 김정연 조옥자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강덕원 최문실 전은희 김영순 한경자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이수경 김경희 이복순 류진희 한성임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임태두 강영미 옥미자 서지영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2교구 교육장비 담당자기 제2교육관 1층
- 찬양감독 장규근
- 찬양지휘자 서준성 김현섭
- 찬양모듬장 김소연
- 찬양연주자 장인희
- 설교 사 송효환